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부탄 팀부 지역의 부탄 소나무 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원장 배상원

사진 1 = 팀부 시내





사진 2 = 탁상 사원

동부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국가 부탄은 북쪽으로는 티벳 (중국) 그리고 나머지 3면은 인도에 둘러싸여 있다. 부탄 면적은 3.8만km²로 스위스 정도의 크기의 나라로 인구는 77만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부탄은 경사가 심하고 해발 2,000m 이상의 면적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티벳과의 국경지역에 최고봉인 해발고 7,570m의 강카르 폰섬(Gangkhar Puensum)이 자리 잡고 있다.

부탄의 숲 면적은 290만ha로 국토면적 70% 이상을 차지하고, 해발 200~1,000m 아열대숲, 해발 1,000~2,000m 난대숲, 해발 900~1,800m 건조지역에서는 소나무숲(Pinus roxburgii), 해발 2,000~2,900m 낙엽활엽수숲, 해발 2,000~2,600m 상록 참나무숲(Quercus semecarpifolia), 해발 2,100~3,000m 부탄 소나무숲(Pinus wallichiana), 해발 2,700~3,100m 가문비나무숲(Picea spinulosa), 해발 2,800~3,100m 슬송숲(Tsuga dumosa), 해발 3,300

~3,800m 전나무숲(Abies densa), 해발 3,700~4,200m 향나무, 로도덴드론 숲이 분포하고 있다. 히말라야 속의 왕국 부탄의 수도인 팀부(Thimphu)는 부탄의 서중부에 있으며, 1961년에 수도로 지정되어 개발된 해발 2,320m, 인구 11만명의 부탄에서 가장 큰 도시다.

부탄의 관문인 부탄 유일의 국제공항은 팀부에서 서쪽으로 50km 이상 떨어진 파로(Paro)에 있으며, 부탄은 20개의 종카그(현, dzongkhag) 행정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팀부현에 자리 잡고 있는 팀부시는 26.1km²이다.

팀부는 팀부강 서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주변 언덕의 해발고가 2,000m에서 3,800m까지 이루며, 팀부는 평평한 계곡부에 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고 좌우로 경사가 있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있는데 특징적이다.

팀부에는 왕궁이 있는 타시초에 종(Tashichoe dzong), 기념 사원(Memorial Chorten), 탕고 수도원(Tango Monastery), 체리(Cheri)사원 그리고 모티탕 타킨 보존 구역 등과 파로 지역의 탁상 사원이 유명하다. 해발 2300m에 있는 팀부 지역의 숲을 이루는 주 수종은 부탄 소나무(Bhutan Pine)로 블루파인(Blue Pine)이라고도 하며, 히말라야, 카라코람, 힌두쿠시산맥이 원산지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 운남성까지 자생하고 있는 상록수로 수고가 30~50m까지 자란다. 부탄 소나무는 한속에 잎 5개가 나고 길이가 12~18cm가 되어 멀리서 보면 잎이 아래로 늘어져 보이고 구과가 가늘게 16~32cm 길이로 자라고 있어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한속에 잎이 5개가 나서 우리말로 부탄 잣나무라고 할 수 있다. 팀부 시내 좌우의 산 사면에는 짙푸른 부탄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사면 아래쪽으로 부탄 소나무가 듬성듬성 서있고 산 위로 올라가면 뽕뽕이 서있는 모습은 주택가 주변의 숲들은 나무를 이용했거나 산불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벌목이 된 것처럼 보인다.

부탄 소나무 숲의 일부는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고사가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산불피해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도시 주변에 소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시내 서쪽으로는 타킨(Takin)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곳은 부탄의 국수(國獸)인 타킨(Burdorcas taxicolor)를 보호하고 있다.

사진 3 = 팀부 사면의 건물과 부탄 소나무 숲





사진 4 = 사원 주변의 부탄 소나무 대경목

사진 5 = 사원내 브라운 참나무

타킨은 야생 들소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부탄 서나무숲에 타킨이 살고 있다. 보호구역의 산 위로 더 올라가면 도심에는 숲이 적지만 주변으로는 부탄 소나무 숲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울창한 부탄 소나무 숲이 자리를 잡고 있어 팀부가 숲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원 입구에 자라는 활엽수는 수고가 10m 정도이지만 굵기가 한 아름이 넘는 브라운 참나무(*Quercus semecarpifolia*)로 상록활엽수다.

특히 산 쪽에 있는 단층 건물 앞 브라운 참나무 두 그루는 굵기가 한 아름이 훨씬 넘고 줄기 중간에 난 가지가 거의 한 아름이 되는 참나무 노거수로 가지를 맞대고 서있으며, 굵은 가지 위에 갈색으로 변한 고사리의 모습이 참나무들의 수령을 말해주는 것 같다. 사원 아래쪽의 길가 부탄 소나무 숲으로 가면 굵기는 30cm 내외이지만 높이는 20m 이상이 되는 소나무들이 뺄뺄하게 찬 숲의 모습이 우리나라 강원도의 소나무숲에 들어온 것 같으며, 이 지역 습도가 높아서인지 소나무 줄기에 이끼와 지의류가 많이 자라고 있어 특이해 보인다.

부탄의 숲의 대부분은 천연림으로 식재하지 않고 숲가꾸기도 실시하지 않아 가지가 그대로 달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부탄 소나무숲도 가지가 아래까지 그대로 달려있으며, 숲 바닥은 관목류로 가득 차 있어 숲속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이다. 팀부 북쪽으로 20~30분 정도 차량으로 가면 숲속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데첸푸 사원(Dechenphu Lakhang)이 나오는데 이 사원은 약 700년 전 건립된 사원으로 해발 2660m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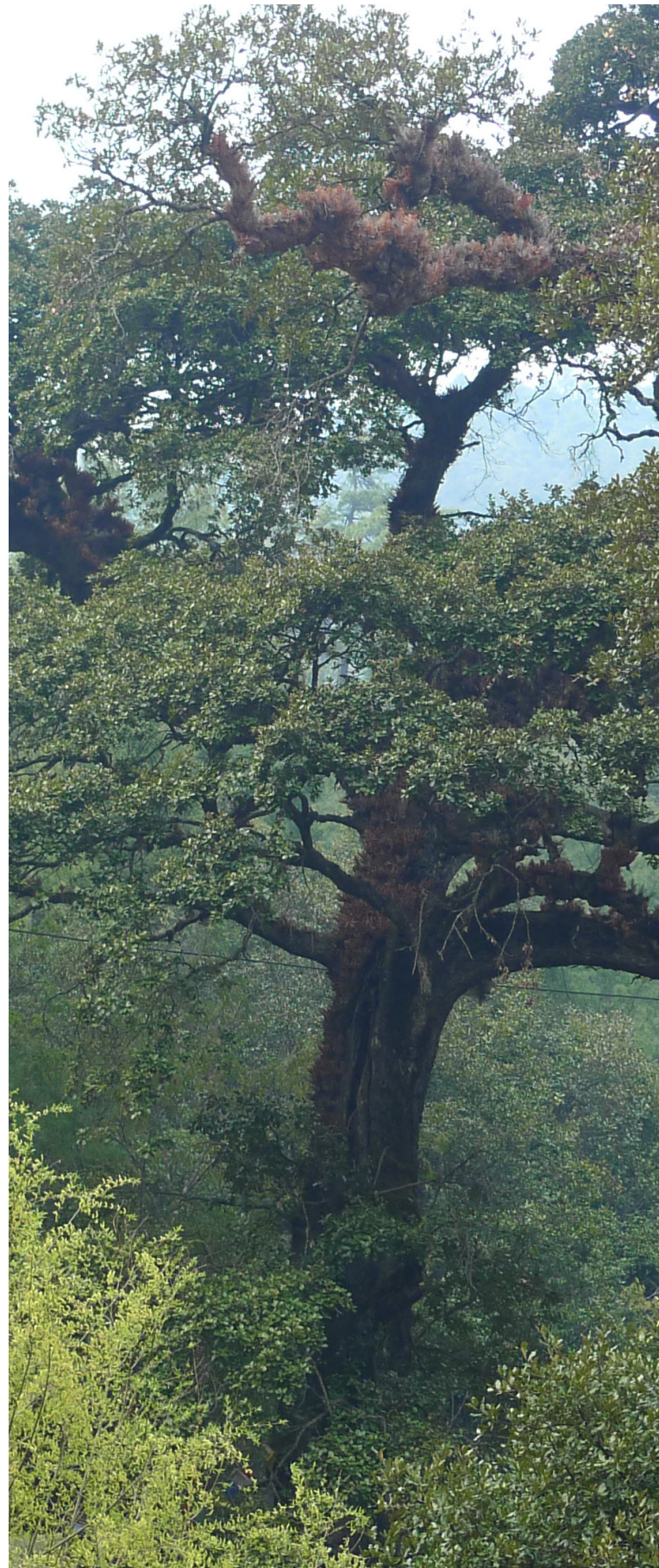




사진 6 = 뽕뽕한 부탄 소나무 숲

사원의 앞은 농경지가 있어 건너편 산줄기가 보일 정도로 전경이 확 터져 있으며, 주변의 숲은 수고 20~30m의 부탄 소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다. 임연부에서 있는 나무들은 굵은 줄기를 길게 뻗어 자라고 있다. 산위 멀리 보이는 능선부 숲에는 해발이 높아서 부탄 소나무 외에도 가문비나무와 솔송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다.

여러 개의 능선이 겹쳐서 보이는 희미한 형태의 경관은 숲의 신비함을 더해 준다. 사원 입구에 자라는 활엽수는 수고가 10m 정도이지만 굵기가 한 아름이 넘는 브라운 참나무(*Quercus semecarpifolia*)로 상록활엽수다. 특히 산쪽에 있는 단층 건물 앞 브라운 참나무 두 그루는 굵기가 한 아름이 훨씬 넘고 줄기 중간에 난 가지가 거의 한 아름이 되는 참나무 노거수로 가지를 맞대고 서있으며, 굵은 가지 위에 갈색으로 변한 고사리의 모습이 참나무들의 수령을 말해주는 것 같다.

사원 아래쪽의 길가 부탄 소나무 숲으로 가면 굵기는 30cm 내외이지만 높이는 20m 이상이 되는 소나무들이 뽕뽕하게 찬 숲의 모습이 우리나라 강원도의 소나무숲에 들어온 것 같으며, 이 지역 습도가 높아서인지 소나무 줄기에 이끼와 지의류가 많이 자라고 있어 특이해 보인다. 부탄의 숲의 대부분은 천연림으로 식재하지 않고 숲가꾸기도 실시하지 않아 가지가 그대로 달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부탄 소나무숲도 가지가 아래까지 그대로 달려있으며, 숲 바닥은 관목류로 가득 차 있어 숲속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이다. 팀부의 부탄 소나무는 중산간지역을 대표하고 부탄의 관문인 파로공항 지역에도 많이 자라는 수종이다. 우리나라 소나무와 같이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특히 사원과 대도시 주변에 자라는 부탄 소나무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